



業界의 '개발투자 노력' 農業人の '보이지 않는 이익' 이다

적정이윤 보장돼야 투자노력 지속 가능
가격 내리는 것만이 능사 안돼

■ 홍보부

현재의 문명은 과연 무엇을 기초로 해서 성립되었을까?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문명은 '화학물질의 사용' 위에서 성립되고 있다고. 그러나 지금은 문명을 탄생케 한 화학물질의 빛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느낌이다. 부정적인 면만을 보려할 뿐 어떻게 사용하면 안전할까 하는 전향적인 생각은 뒤로 접어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농약은 부정적인 면만을 생각하면서 단순히 독성물질로 접

어두기에는 작물생산에서 차지하는 잇점이 너무나 크다. 다만 농산물의 품질과 수량을 무시해도 좋다는 각오라면 부정적 평가를 내려도 무방하다. 농약은 역사적인 새 상품이다. 시간이 흘러도 퇴색하지 않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탄생하는 '정밀화학의 총아'라 할 수 있다.

'기아의 세기'라는 21세기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식량

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만한 대체수단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는 화학물질 즉 농약의 중요성과 필요함을 걱정하는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과학적인 분석과 검증을 거치지 않은 단편적인 상식으로만 농약의 가치를 폄하하려 한다. 그것이 업계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농경

지 및 농업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농업이 대두되고 있는데다 OECD의 환경농업 확대 권고 등 주변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가격시비 및 신제품개발과 품질관리, 잔류문제 등의 3중고에 신음하고 있다.

가격시비에 휘말린 농약업계

'상품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화폐로 나타낸 것'이 가격이다. 이 가격은 철저한 자체검증을 통해서 결정된다. 특히 농약은 다른 분야와는 다르다.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으로 충당하는 농약가격은 환율변동에 가장 민감한 품목이다. 제조원가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0%를 웃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소비량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무작정 원료를 수입해 놓고 소비를 기다릴 수도 없다. 최근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법규에서 정한 생산설비를 철저히 갖춘 농약업체의 공장 평균가동율은 겨우 20%를 유지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농경지 및 농촌인구와 환경농업의 대두, 잔류농약 감시활동 강화 등 주변환경 변화와 무작정 가격을 내리기만 고대하는 농업인들의 요구에 이연실색이다. 어디에서도 업

계의 입장이나 고충을 고려한 곱은 시각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농약경영비중 농약값이 그렇게 부담이 되는가? 통계에 의하면 기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농약경영비중 농자재 구성 비율을 보면 농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6.5%로서 사료비(21.9%), 농구비(16.0%), 기타(11.6%)보다 점유율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가격시비는 농약분야에서만 맴돌뿐이다. 이는 편견이며 오판일 수 있다.

그러나 농약업계는 올해만도 두차례에 걸쳐 가격을 인하했다. 올해 환율이 비교적 정상궤도에 들어섬에 따라 지난 1월에 이미 7.1%를 인하한 바 있다. 업계는 또 3월 19일 4%를 또다시 인하했다. 이는 IMF체제 이전 가격에 비해 모두 15%가 인하된 것으로 환율안정에 의한 가격인하 요인을 모두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제품 개발과 품질관리에 부심하는 농약업계

농업인의 피땀으로 유지되는 농약업계는 다양한 형태로 이윤을 농업인에게 환원하게 되는데 무작정 이윤을 적게한다면 어떻게든 환원이윤도 적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신제

품 개발을 통한 이윤환원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고 농약의 수명도 짧을 수 밖에 없다. 농약산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으로 농업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매년 가격인상 요인의 상당부분을 경영합리화 등으로 흡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말 농협은 한 보고서를 통해 농약의 매출 이익율이 44.4%에 이른다고 밝혀 각종 매체는 이 부분을 크게 장식하였으나 농협은 같은 내용에서 자기자본 경상이익율은 2.6%이며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낮은 이익률로 보아 질 좋고 안전한 우수제품의 개발을 위해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인하만을 고집한다면 하나를 얻기 위해 둘을 잃는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 지금은 좀더 거시적이면 미래를 바라볼수 있는 지혜와 슬기가 필요하다.

최근 농약업계는 M&A 열풍에 몹시 힘겨워 하고 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국적 기업의 안방 진입은 현실로 다가왔으며 갈을순 없으나 땀수도 없는 종묘업계는 농우종묘만이 자생하고자 애쓰고 있는 힘겨운 현실이 된지 이미 오래다.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다른업체와 일부 회사에서 다



확 대 경 ... 3중고에 신음하는 농약업계

국적기업의 농약업계 참여를 바라보는 시각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부러움과 함께 큰 문제가 없는 듯 하다. 30%대의 국내시장 잠식은 세계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다는 뜻일게다. 그러나 꺼질줄 모르고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모모회사의 인수설이 현실화 되었을 경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대책이 뒤따라야 할 형편이다. 이제 다국적기업의 참여를 바라보며 앞날을 예측하는 업계사람들은 반 전문가가 된 듯 갖가지 시나리오를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언제 또다시 고개를 내밀지 모르는 농협의 제조업 참여설과 M&A 이후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품목이동 등 업계의 변화를 예측하기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불투명한 상태지만 모두가 촉각을 곤추 세우고 있다.

이같은 예측 불가한 미래를 바라보며 개발투자의 활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 일른지도 모른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적정 이윤은 외면한채 무작정 가격

을 내리라는 일부 주장 또한 활발한 개발투자로 얻을 수 있는 농업인의 이익을 가로막는 억지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무독성·무공해 생물농약인 'KL1114 MBF' 그리고 'AC-1' 과 '바이오박' 개발에 성공한 동부한농과 제초제 '피안커' 에 이은 신물질 살균제 '가디안' 의 상품화에 성공한 LG화학의 결실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이러한 농약업계의 노력은 농업인의 '보이지 않는 이익(Invisible Benefit)' 으로 직접 되돌아 가는 것이며 적절한 이윤이 보장될 때 지속가능할 것이다.

또 농약업계에 짐을 지우는 요소들은 도처에 즐비하다. 물론, 고시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시각적 계산은 어려우나 신제품의 조기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 반면 자료의 체계적 관리 미흡이나 군소업체의 난립 등은 챙겨야 할 부분이다. 21개의 농약제조업체, 24개의 원제 수입업체, 26개의 원제합성업체, 30개의 농약수입업체. 이

중에는 겸업체도 많으나 이는 엄연한 현재의 농약업체 등록 현황이다. 물론 이들업체중 상당업체가 농약공업협회 22개사의 제조 및 원제 회원사들의 노력에 문혀 성업중임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군소업체의 품질관리 능력과 문제점 등은 검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일어탁수(一魚濁水)의 진리를 대입하지 않더라도 자칫 기존업체의 이미지를 훼손할 할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약해발생시 대응능력 미흡이나 유효기간 경과품목의 처리 또는 불량농약의 유통, 영업중 도산 등 많은 부분에서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잔류문제로 고통받는 농약업계

많은 사람들은 첨단 과학시대의 혜택을 향유하며 윤택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서도 과학의 결과를 부정하며 불신하는 이중적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무척이나 안타깝고 아쉽다. 농약은 식물을 위해 탄생한 첨단 화학제품이다. 사람을 상대하는 첨단 의약품이 아니다. 문명의 이기는 종류를 망라하고 올바른 목적외에는 상상할 수 없는 위험을 갖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유독 농약한테만은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려 하지않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그런 논리가 가능하다면 현대생활에 유용한 문명의 이기는 모두 사용을 금지해야 할 것이다.

국민소득증대로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풍요로운 삶은 아무런 노력없이 찾아온 것은 아니다. 누군가의 아나 무엇인가의 공헌이 아니면 모두가 풍요로울 수 없다. 환경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농약잔류 문제에 대한 소비자 또는 환경·소비자 단체들의 시각이 분주하다. 친환경농업 분위기 확산 등 많은 주변환경들이 업계를 고통받게 한다. 이러한 고통은 과학의 부정적인 면만을 찾으려 하고 무농약의 비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잔류농약 검출시비가 잦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잔류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목전의 작은 이익만을 노리는 일부 부도덕한 사람들로 인해 선의의 생산자 및 소비자가 위협에 노출되고 제조업체까지 불신 받는 현실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된다. 다행히 관계기관과 업계의 합심으로 잔류농약 검출시비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한 소면적재배작물에 대한 적용농약이나 안전사용기준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또 서울

국민소득증대로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풍요로운 삶은 아무런 노력없이 찾아온 것은 아니다. 누군가의 아나 무엇인가의 공헌이 아니면 모두가 풍요로울 수 없다.

시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농산물검사소, 식품의약품안전청, 대형백화점 등에서의 농산물 중 농약잔류검사 강화로 이제 더 이상 농약잔류가 발붙일 곳은 없어지고 있다.

농약업계에서도 주산지별 방문교육을 강화하고 생산자 초청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용 홍보노력도 한층 더해가고 있는 즈음에 이제는 언론에서도 보다 성숙된 보도를 함으로써 사회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또 우리소비자들도 일부 바르지 못한 보도나 유행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의식의 향상으로 우리농산물이 신뢰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다같이 노력해야 하겠다.

피해 농업인의 몫이어서는 안돼

기업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이윤추구'에 있다. 그러기에 누구도 적정한 이윤추구를 강제로 제한해서는 안된다. 또 가격을 내리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판이다. 가격은 좀더 진보된 이익을 얻기위해 투명한 가치이다. 물론 지금까지 신뢰받지 못할 정도로 사욕을 위한 과도한 이윤추구 기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얻은 이윤은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환원된다.

일부 그릇된 주장으로 적정 이윤이 보장되지 않아 농약업계의 개발투자 의욕이 저하된다면 그 피해는 모두가 나누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농업인에게만 귀속된다면 그것은 안될 말이다. 따라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 외치는 주장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거나 감정적이어서는 안된다. 그 결과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불이익으로 되돌아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한 우수농약 보급이 최선이어야 할 농약업계도 투매행위 자체 등 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나만을 위한 마케팅 전략보다 우리라는 공생(共生)전략이 수명이 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농약정보**